

해남군,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선포

4개년 중점사업 발굴 노력 결실 지속가능한 아동 권리 실현 매진

전라남도 해남군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군청사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을 게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받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와 협력 기회의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해남군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5년 6월2일부터 2029년 6월 1일 4년간이다.



지난달 27일 해남군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선포됐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2022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향후 4년동안 유니세프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지속가능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선포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며 "아이들이 신나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선포식을 통해

해남군이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 한다"며 "아동의 목소리가 군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 해남군, 표기 오류 등 즉각 정비

전라남도 해남군은 오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 부여할 수 없는 등산로·해안가에서 재난 및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 메뉴에서 주변 국가지점번호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두륜산, 관두산 및 고천암 등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는 금강산 및 남파랑길, 달마고도 등의 등산로 100개소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를 한국 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에 의뢰해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의 비정상 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파악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국민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 도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대교' 경관 조명 시설물 정비 최신 LED 조명 연출 적용

전라남도 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 조명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목포대교 경관 조명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개통된 목포대교는 그동안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조명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연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총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중 목포대교 경관 조명 특화사업에 사업비 조정을 거쳐 96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주탑 케이블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파사드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량의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현재 설치된 주탑, 접속교 하부, 난간 등 노후 조명을 최신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래밍 기반의 연출기법을 적용해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구현할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문화관광체육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더불어 실시설계 및 교량의 구조 안전성 검토(풍동시험 포함)를 시행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주민 대상 치매조기검진 고위험군 75세 이상 대상

전라남도 신안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치매 고위험군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월 초 조기검진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이번 검진은 상반기에 조기검진을 받지 못한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고 치매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 발견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한다. 검진은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 도구(CIST)를 활용해 지남력, 기억력,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1차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발견된 경우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3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은 협력병원으로 연계해 혈액검사 및 뇌영상 촬영 등을 시행하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외국인주민 동행 사업' 단체 모집 영암군, 4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영암군이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화합을 위해 노력할 '2025년 외국인주민 동행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4일까지 공모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이 지원사업에는 이주민 교육·상담·주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이 있는 전문성 갖춘 비영리영암군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법인·단체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인적·물적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7% 이상을 법인·단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zidane384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청 직원들이 최근 지산면 금노, 거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펼쳤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전라남도 진도군이 최근 지산면 금노, 거제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진행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디지털배움터의 '에듀버스'를 활용해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

의 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자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키오스크 실생활 활용 교육 △건강 의뢰기기 체험 및 건강진단 △말하는 에이아이(AI) 로봇과의 대화 등 디지털 교육과 건강 관리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에 높은 만

족도를 보였으며 말하는 에이아이(AI) 로봇 '다솜이'와의 대화 체험이 가장 호응이 높았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지속해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독립·예술영화 특별기획전 연다

8월부터 30여편 무료 상영

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문화 소외지역

의 소규모 영화관을 중심으로 예술·독립영화와 기획 콘텐츠를 상영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무안작은영화관은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총 30여편의 특별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전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을

주제로 국내외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영화감독과의 대화, 관객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 관람도 운영해 무안작은영화관에 신청하면 된다.

허재경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민들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